



제99장 질 질

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동일한 내용과 목적, 부활과 그의 양상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. 부활의 날 대지가 크게 진동하니 그 안에 있던 모든 시체와 보물들이 밖으로 나와 심판을 받아 그가 현세에서 행하였던 업적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흩어져 들어가게 된다. 대지가 크게 흔들리는 부활의 날에 있을 계산에서 인간이 행한 어떠한 미아의 선행이나 악행도 숨겨질 수 없으며 그가 행한 그대로 보상과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.

본 장의 명칭은 제1절 “대지가 심하게 진동을 하며”에서 언급된 「질 질」이란 어휘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본다.

제 99 장

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
하나님의 이름으로

1. 대지가 심하게 진동을 하며¹⁾
2. 대지가 그속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도다¹⁾
3. 인간은 비탄하고 고통치며 어찌된 일이노
4. 그날 대지는 그의 소식을 얘기하리니¹⁾
5. 실로 주님은 그에 관해 계시하였노라
6. 그날 사람들은 여기 저기 무덤에서 떼지어 나와 그들의 업적들을 보이노라¹⁾
7. 티끌만한 선이라도 실천한 자는 그것이 복이 됨을 알 것이며
8. 티끌만한 악이라도 저지른 자는 그것이 악이 됨을 알리라



بِسْمِ اللّٰهِ الرَّحْمٰنِ الرَّحِیْمِ ۝

اِذَا زُلْزِلَتِ الْاَرْضُ زِلْزَالَهَا ۝

وَاُخْرِجَتِ الْاَرْضُ نَثْقَالَهَا ۝

وَقَالَ الْاِنْسَانُ مَا لَهَا ۝

يَوْمَئِذٍ تُعَدِّثُ اَخْبَارَهَا ۝

يَاۤاِنَّ رَبَّكَ اُوْحٰى لَهَا ۝

يَوْمَئِذٍ يُصْدَرُ النَّاسُ شَتَاتًا لِّيُرَوْا اَعْمَالَهُمْ ۝

مَنْ يَّمْعَلْ مِثْقَالَ ذَرَّةٍ خَيْرًا يَرَهُ ۝

وَمَنْ يَّمْعَلْ مِثْقَالَ ذَرَّةٍ شَرًّا يَرَهُ ۝

1-1) 첫번째 날파이 울릴 때 대지가 크게 진동하니 이때가 바로 부활의 시작이다.

2-1) 땅속에 있는 모든 시체와 보물들이 땅밖으로 나온다고 문지르 이브누 싸이드는 풀이하고 있다(타프씨르 알울루씨 209/30).

4-1) 부활의 날 대지는 대지위에서 행하여졌던 선과 악의 모든 소식을 알려 주리니... 즉 모든 인간에게 그가 지상에 있을 때 행하였던 모든 것을 증언 할 것이라고 아부 후라이라는 전하고 있다(사프와트 타파씨르, 제20권 p.90).

6-1) 무덤에서 나와 심판을 받기 위해 다같이 모여 그들이 행했던 업적에 따라 계산된 후 천국과 지옥으로 흩어져 가게 된다(꾸란 어휘해설, p.431).